어린이 포교 성공열쇠 '눈높이'

천태종 부산 광명사 기획 · 원력 · 봉사 3박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광명사가 적극적인 어린이 포교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에서 어린이들이 법회를 장엄하는 모습.

주지 개문 스님 어린이에 관심
행사 기획부터 '쉬운 불교' 고민
대학생 숙소 제공, 동참 이끌어
청장년 포교로 자연스레 이어져

타종교에 비해 청소년 · 영유아층 신도가 적은 불교에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여전히 법회와 수련회 등 어린이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이 사찰에서 사라지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어린이 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태종 광명사(주지 개문)가 1월 4일 처음으로 개최한 '제1회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는 100여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모여들었다. 사찰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에서 참여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다. 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 열리는 정기법회에는 어린이 30여 명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약 1년 6개월 전만 해도 법회에 참석한 어린이는 3~5명이 최대인원인 광명사였다. 광명사는 어린이 포교에 힘을 쏟은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처음 개최한 수련회도 참석인원이 높아 어린이 포교의 성공 열쇠를 제시할 전망이다.

광명사 어린이 포교가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주지 개문 스님의 원력' 그리고 '대학생 봉사' 등 세 박자가 맞았기 때문으로 사찰 측은 보고 있다.

광명사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어린이 겨울불교학교에서도 육도윤회를 이해시키기 위해 영화 '신과 함께'에서 영감을 얻어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지옥세계를 주제별로 잡아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자칫 무섭고 어려울 수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게임과 체험으로 재미있게 담기도록 했다. 아울러 한빙지옥, 철상지옥, 아귀도 등 각 지옥세계에 맞도록 효와 불살생, 불망언 등 부처님 가르침을 강조했다.

정기법회에서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동지, 부처님오신날, 정월대보름 등 각 계절 절기 및 행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들의 연령대와 시시각각 바뀌는 관심사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도움에 나선 이들은 바로 부산대 학생들이다. 광명사는 현재 부산대 학생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숙소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뒷받침해주면서 어린이 법회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박성현 지도교사는 "대학생들이 3명씩 조를 이뤄 방문해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봉사를 담당해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어려움이 없었다"며 "대학생들도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 청년포교 현장까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현 지도교사는 광명사가 어린이 포교에 박차를 가한 건 주지 개문 스님의 원력과 지도법사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도교사는 "주지스님이 어린이 포교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시설 지원 등 아낌없는 후원이 이어졌다"며 "아울러 크고 작은 행사에 어린이들이 참여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이끌어주셔서 어린이들의 활동이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사 어린이회는 지난해 광명사 신도회 창립 50주년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등 굵직한 행사에 참여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어린이들의 활약이 신도들의 눈길을 끌면서 광명사 노불자들도 어린이 법회를 인식해 손자 · 손녀 등 가족들을 법회에 데리고 오는 계기가 됐다.

박 지도교사는 "광명사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치원 졸업 후 학교에 진학하면 불교적인 가르침이 흩어져 아쉬웠는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높아져 무엇보다 기쁘다.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사찰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울산환경연대 대표 천도 스님 취임

1월 11일 신임 상임대표로 "의식 있는 불자 양성할 터"

울산 자연환경 지킴이 울산불교환경연대에 새로운 상임대표로 언양 백련사 주지 천도 스님이 취임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제2대 상임대표 이 · 취임식을 1월 11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했다. 이 · 취임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 △이임사 △취임사 △격려사 △축사 △임원진인사 △불교환경선언문 및 환경오계 낭독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했다.

신임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호주의 산불을 볼 때, 환경문제는 지구공동체 모두가 떠안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기후와 환경문제의 당면과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생명사랑과 자비행을 실천하고, 녹색사찰협약과 환경법회를 통해 의식 있는 불자들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교육과 환경 캠페인 등으로 사회 대중과 여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아름다운 환경연대가 되어 보살행의 꽃을 피우겠다"고 다짐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새 임원진. 사진 앞줄 가운데가 신임 상임대표 천도 스님이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불교 연기적 세계관과 동체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2018년 4월 10일 창립됐다. 이후 사찰 경내 자연수호와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 캠페인 등 실천과제를 실천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교육대학 "졸업은 곧 나눔"

졸업식서 지역 중 · 고등학생에 장학금 600만원 전달

조계종 울산사암연합회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학장 진응)은 1월 14일 제38기 불교교리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교리반 28명이 졸업했으며, 제15기 꽃꽂이반 6명과 제2기 불교무용반 8명의 수료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동문회는 장학금 총 600만원을 지역 중 · 고등학생 12명에게 전달했다.

이사장 산옹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베푸는 마음을 알고 실천을 하는 것"이라며 "항상 오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학장 진응 스님은 "이번 한 해 울산불교의 오랜 전통과 좋은 강사진으로 구성된 불교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힘찬 시작"이라며 "졸업생 여러분은 초발심을 잊지 말고 배움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장 진응 스님이 교리반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 공고

본 종의 승적을 취적한 모든 승려는 승려법 및 승려분한신고시행령에 의거하여 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하여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여야 하오니 다음과 같이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단은 스님들께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승려복지법에 의거하여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에 정기분한신고 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같이 제출 받습니다.

- 다 음 -

●신고기간 : **불기2564(2020)년 2월 3일(음 1.10) ~ 4월 30일(음 4.8)**

●신고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신고서류

가. **내국인 및 외국영주권자(대한민국 국적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인감날인)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인감증명서 ····· 1부
※유언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5) 기본증명서(상세본) ·····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1부
8) 주민등록 초본(모든변동사항 포함) ····· 1부
9) 주민등록 등본(모든변동사항 포함) ····· 1부
10)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중 1가지) ··· 1부
※신분증의 증명사진은 승복을 착용해야 함
11)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12)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cm×4cm) ····· 3매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13)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14)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나. **외국인 및 외국국적취득자 또는 시민권자**

1) 분한신고서(소정양식) ····· 1부
2) 신상명세서(소정양식) ····· 1부
3) 자필유언장(본인서명)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 1부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부
※ 주민센터에 본인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기간만료 전) ····· 1부
6) 현 승려증(분실인 경우 분실명기)
7) 구비서류 부착 외 별도 증명사진(3cm×4cm) ····· 3매
※ 촬영한지 3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삭발염의 필할 것
-구족계 수지자(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사미계 수지자(만의/장삼 수한 사진)
8)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의 경우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1부
9)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신청서(소정양식) ····· 1부

●**서류접수처** :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에 분한신고서류를 접수함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사무처에 접수)

●분한신고 수수료
1) 2010년도 분한신고를 필한 승려 : **없음**
2)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직권제적자 : **10만원**
※ 수수료는 재적교구본사로 납부함

●주의사항
1) **신고기간 내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승려법 제34조의 7(분한심사의 처리) 제1항에 의거하여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2) 승적 말소란 본 종 승려로서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을 뜻합니다.
3) 모든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및 위 · 변조 사실이 확인될 시 종법에 의거하여 승려로서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승적말소자·직권제적자 분한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2010년 분한신고 미필로 인한 **승적말소자** 및 2회 이상 분한미필로 인한 **직권제적자**는 별도의 교구심사를 거쳐 총무원에 상신하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1) 분한신고미필사유서(소정양식) ····· 1부
2) 사찰거주확인서(소정양식) ····· 1부
3)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 도반등의 수행확인서(소정양식) ····· 1부
4) 승납재기산 동의각서(소정양식) ····· 1부
5) 제적등본 ····· 1부
※ 제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변동 전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분한신고 양식 다운로드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 → '불기2564(2020)년 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의처
각 교구본사 종무소
직할교구사무처 02)2011-1930~1932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02)2011-1703~1705

불기2564(202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

■2011년도 제정된 승려복지법에 의해 시작된 승려복지제도가 2020년 올해 10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종단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과 함께 요양비,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2,600여명의 스님들께 11억여 원 이상을 지원해 드렸고, 이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과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시행하오니,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근거종법 : 승려복지법
●납부대상 :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승려
●납부금액 : 월 10,000원
(단, 구족계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승려는 월 5,000원)
●납부개시 : 2020년 7월부터(사전 선납 가능함)
●납부방법 : 계좌이체
(소정양식의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 작성)

□ **CMS** (자동이체 : 승려복지회에서 7월에 출금 등록)
□ **계좌이체**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
국민 023501-04-262677 농협 301-0262-9883-41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임금하시는 스님의 법명과 성명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2020년도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
●소정양식 : 조계종홈페이지(승려 정기분한신고 시행공고 참고)
●문 의 : **총무원 승려복지회 02)2011-1726~7, 010-2926-1726**

불기2564(2020)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